암스테르담 유럽에서 HIV 감염률 최고

유럽공동체(EU)가 최근 유럽 각국의 수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HIV감염자를 보유한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스테르담 주민 10만 명당 약 17.7명이 HIV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암스테르담이 다른 국가보다 많은 마약중독자와 동성애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1999/09/19)

한국인 에이즈바이러스 유전자지도 완성

한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에이즈바이러스(HIV-1)의 전체 유전자 지도가 처음으로 완성됐다.

울산의대 조영걸(미생물학교실) 교수는 HIV-1에 감염된 뒤 10년 이상 병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국내 보균자의 HIV-1 유전자 전체 염기서열을 밝히는데 성공했다고 지난 9월 29일 밝혔다.

조 교수는 『이 연구결과는 국내 HIV-1 감염자 중 장기간 무증상 생존자에서 배양된 HIV-1의 전체 염기서열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며 『국내 HIV-1의 분자적 특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백신개발을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1999/09/29)

에이즈침투 차단 새물질 발견

2년전 작살을 이용한 에이즈바이러스(HIV)의 인체세포 침투 메커니즘을 밝혀냈던 미국 매사추세츠공대의 피터김(41·재미동포 2세·김성배) 교수가 바이러스의 작살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찾아 에이즈 정복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교수가 속한 미국 화이트헤드 연구소는 지난 9월 30일 김 교수가 HIV의 취약부위에 달라붙어 HIV가 인체 세포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D펩타이드라는 물질을 찾아내 학술지 〈셀〉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에이즈 치료제가 이미 세포에 침투한 HIV를 목표로 삼는데 반해, 이 화합물은 HIV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차원의 치료제다.

김 박사는 "이번에 우리가 찾아낸 화합물은 세포에 HIV가 들어가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작은 분자 수준의 약을 개발하는데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1999/10/01)

일본적십자 기증 혈액에 HIV 감염

일본적십자사(JRC)가 기증한 혈액으로 만든 혈액제제를 사용한 환자 1명이 에이즈바이러스(HIV)에 감염되고 또다른 1명이 감염된 것으로 믿어진다고 JRC가 지난 10월 7일 밝혔다.

문제의 혈액이 검사에서 통과한 것은 HIV가 감염된 후 항체가 나타나기까지 22일간의 잠복기간에 감염자의 혈액이 채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JRC는 말했다.

JRC가 일본후생성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문제의 혈액은 지난 7월 간토(關東)지방의 혈액센터에서 헌혈자로부터 채혈된 400㎖로 이 헌혈자는 채혈당시 HIV음성으로 나타났다.

그후 8월 이 혈액에서 채취된 적혈구가 간토지방의 한 병원에서 한 남자 환자에게 수혈되고 같은 혈액에서 만들어진 혈장이 9월 중부지방에 있는 한 병원에서 또다른 환자에게 수혈되었다.

핵산증폭검사는 HIV의 잠복기간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JRC가 지난 7월부터 도입하기 시작

했는데 문제의 혈액이 채혈된 간토지방 혈액센터에서는 당시 이 검사법이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일보 1999/10/08)

에이즈 때문에 기형적 인구분포

유엔인구기금에 따르면 현재 인류 평균 수명은 46세(1950년)에서 66세로 늘었고, 2050년에는 76세가 될 전망이다. 중간연령도 29세(1950년)에서 38세로 높아졌고, 2050년엔 46세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 에이즈와 높은 출산율로 인해 오히려 평균수명이 줄어들고 중간연령도 내려가고 있다. 성인의 4분의1이 에이즈에 감염돼 있는 보츠와나의 경우, 평균수명이 80년대 후반의 61세에서 47세로 줄었다. 2005~2010년에는 38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인의 20%가 에이즈에 감염된 짐바브웨는 현재의 평균수명 44세가 2000~2005년에는 41세로 낮아진다.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는 34개국중 29개국이 아프리카에 있다. 작년에 에이즈로 사망한 250만명중 아프리카인이 200만명 이상을 차지했다.

유엔인구기금은 "아프리카 정부나 주민들이 에이즈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환자가 현격히 줄어들 것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힘든 상태다.

결국 에이즈와 높은 출산율은 아프리카 중간연령을 세계 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18세로 만들었다. '어른'은 없고 '아이'만 있는 대륙으로 변모한 셈이다. (조선일보 1999/10/13)

새 에이즈 백신 실험 성공적

새로운 에이즈 백신 「에이즈백스(AIDSVAX)」를 5,000명의 환자에게 실험한 결과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약품의 제조회사 백스겐이 지난 10월 12일 발표했다.

이 실험은 6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돼 56개 병원이 참여했으며 현재 푸에르토리코 네덜란드 캐나다 태국 등에서 실험이 진행중이다. 백스겐은 태국의 경우 환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에이즈백스가 안전하고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봄 3년간에 걸친 대규모 에이즈백스 실험을 허용했다. (한국일보 1999/10/13)

ILO, 아프리카에 에이즈 대책 촉구

국제노동기구(ILO)는 아프리카 국가에 '에이즈 위기'를 범대륙적 재난으로 선언하고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난 10월 14일 촉구했다.

ILO는 사하라사막 이남 20개국 대표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에이즈는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아프리카 HIV/AIDS 행동강령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ILO는 3일간 계속된 회의를 끝내면서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아프리카 정부가 HIV/AIDS 문제를 국가 재난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은 전세계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 3천3백여만명 중 2천2백50여만명이 아프리카인이라고 추정하고 에이즈를 아프리카 대륙의 발전과

진보를 막는 최대의 적으로 간주했다.

ILO는 에이즈가 확산되면서 HIV감염자와 비감염자 사이에 차별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남녀간 성차별, 청소년 노동착취, 중소 및 민간 경제 위축, 생산성 하락, 사회치안 약화 등의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1999/10/14)

아시아, 에이즈 확산 대책 시급

아시아 각국들은 아프리카의 전철을 밟기 전에 에이즈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긴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난 10월 24일 지적했다.

피터 피오트 유엔에이즈프로그램(UNAIDS) 사무국장은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이즈 국제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이즈 및 HIV 감염은 아직도 시작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시아 국가들이 아프리카에서처럼 단호한 대응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대량으로 죽어가도록 기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피터 피오트 UNAIDS 사무국장

UNAIDS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6-98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HIV 감염은 70%나 증가해 각 대륙 가운데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400만명의 감염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캄보디아의 경우 전체 인구의 5%, 성인 인구의 25%가 에이즈 또는 HIV 보균자이며 태국은 인구의 2%가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도 에이즈 연구 업적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HIV 약값을 내려줄 것을 제약업체들에 촉구했다. (대한매일 1999/10/24)

아시아 경제위기가 에이즈 확산 부채질

아시아 국가들이 지난 20년간 이룩한 경제성과가 에이즈 확산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세계은행 전문가들이 지난 10월 25일 경고했다. 세계은행의 마르타 에인스워스는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남부 등 아-태 지역 국가들을 대표적 에이즈 확산국으로 꼽았다. 그는 "97년 외환위기 전부터 에이즈가 이 지역에 강력한 발판을 구축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에이즈 억제 정책이 큰 손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외환위기는 수백개의 기업을 도산시켰고, 각국 정부로 하여금 에이즈 예산을 대폭 삭감케 했다는 분석이다.

에인스워스는 일부 아시아 주민들의 평균수명이 에이즈 때문에 이미 몇년씩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아시아가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아프리카의 전례를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보고서는 에이즈 확산으로 인해 오는 2010년 미얀마 인구의 전체 사망률이 이전보다 20%, 태국 인구의 사망률이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은 에이즈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아시아 인구를 7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9/10/26)

새 에이즈 치료약 매우 효과적

에이즈 치료약 ABT-378/retonvir가 최근 실험결과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지난 10월 25일 밝혀졌다.

미국 듀크대학 의료센터 찰스 헉스 교수는 다른 에이즈 치료제인 스타부딘과 라미부딘과 함께 이 약을 48주 동안 사용한 환자의 85%가 혈중 바이러스 수준이 탐지될 수 없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또 구토나 설사 등 부작용도 참을 만한 정도여서 약복용을 중도에 그만둔 환자는 한명도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연합뉴스 1999/10/27)

에이즈바이러스 완전제거 불가능

최신의 에이즈 약 혼합 복용으로 에이즈바이러스(HIV)를 억제할 수 있으나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고 미국 국립보건연구소의 앤서니 포시 박사가 지난 10월 27일 경고했다.

포시 박사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끝난 에이즈 세미나에서 HIV는 치료를 중지하면 곧 공격을 다시 가한다면서 이같이 경고, 최신 약물치료로 인체에서 에이즈를 제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일축했다.

그는 "인체 속의 HIV 제거는 불가능하다"면서 "혼합 약물 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를 한 결과 치료가 계속 되지 않으면 HIV가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고도의 적극적인 항(抗) 레트로바이러스 요법(HAART)이라고 불리는 혼합 약물 치료를 받은 에이즈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혈액과 림프절을 시험한 결과 HIV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치료를 중지한지 불과 2~3주만에 환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에서 HIV 감염 세포가 인체를 통해 떼지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999/10/29)

에이즈바이러스 또다른 은신처 밝혀

재미 한국인 과학자 전태욱(31) 박사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에이즈바이러스(HIV)가 인체내 비활동성T세포 이외의 곳에도 은신한다는 연구결과를 네이처지(誌) 10월 28일자에 발표했다.

미 국립보건원(NIH)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연구원인 전 박사는 지난해 몇 가지 에이즈 치료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에이즈 치료법인 칵테일 요법과 병행,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단백질 '인터루킨2'를 사용하는 '복합요법'을 개발하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에이즈 치료법이라는 것을 증명해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번 논문은 복합요법으로 거의 완치된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면 곧 HIV의 숫자가 급증한다는 것에 주목, T세포 외에도 다른 곳에 HIV의 은신처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전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다른 은신처는 인체 내 모든 면역계 세포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9/10/29) Ⓐ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11월의 건강길라잡이 주제를 "에이즈 예방"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에이즈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www.kihasa.re.kr/hnews.htm 에서 볼 수 있다.